

세계화 시대 문화적 혼종성의 가능성*

이성훈 · 김창민
공동/서울대학교

Lee, Seong-Hun & Kim, Chang-Min(2008), La hibridación cultural y la globalización, *Revista Iberoamericana*, 19-2, pp. 91-110.

Este estudio intenta revisar el término 'hibridez o hibridación' de Néstor García Canclini, que se califica como uno de los críticos más importantes de los estudios culturales latinoamericanos. Este término se puede hacer un rol relevante en analizar la situación actual y la futura de la cultura latinoamericana relacionándola con el proceso de la globalización. Además, a través de los debates sobre el término, podemos bosquejar los diversos puntos de vista sobre los estudios culturales latinoamericanos.

En su *Culturas híbridas* se muestra la ruptura epistemológica con su anterior punto de vista sobre la cultura. La ruptura se concretiza a través de la misma hibridación, por la cual García Canclini contempla la cultura latinoamericana de otra manera. Así, los conceptos como la globalización, la identidad, el consumo llegan a tener importancia en los estudios de García Canclini.

Sobre todo, su análisis sobre Tijuana, la ciudad fronteriza entre los Estados Unidos y México, nos da un ejemplo muy concreto de la hibridación. La hibridación sigue actuando entre las culturas diferentes o desiguales, lo cual nos impide evaluar su resultado. Sin embargo, ese término adquiere gran importancia al analizar las culturas latinoamericanas en la era de la globalización.

[Néstor García Canclini / hibridez / hibridación / globalización;
네스토르 가르시아 칸클리니 / 혼종성 / 혼종화 / 세계화]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42-A00116).

I. 들어가면서

최근의 세계 금융위기가 보여주고 있듯이 이른바 세계화는 삶의 과정들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엄청난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적인 세계질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새로운 대안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작금의 경제위기가 보여주고 있는 ‘세계화된 효과’의 파괴력 앞에서 공포와 전율을 토로하는데 그치고 있다. 주된 논의 역시 세계화의 영향들이 보다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정치와 경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개인의 의식과 공동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 분야에서의 세계화야 말로 삶의 구체적 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거시적인 세계화 논의에서 벗어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영역이다.

지난 세기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세계화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경계와 위기의식이 도처에서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네스코의 <문화 다양성 선언>과 <문화다양성 협약>이다. 이것들은 세계화가 초래하는 문화의 획일화와 패권화, 그로 인한 문화 정체성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최근의 경제 영역에서 보여주는 파국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그리 과장된 것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문화적 획일주의와 정체성 상실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선언이나 논의들 역시, 미국의 일방적 패권에 대응하는 유럽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문화 다양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세계 각 지역의 다양한 관점과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비판 역시 상존한다. 다시 말해 문화 영역에서 세계화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논의는 일부 주도국 중심의 지식생산 체계라는 한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세계화를 둘러싼 논의는 서구의 그것을 재생산하는데 그치고 있고,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세계화 과정을 비판적으로 전유할 이론적 시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사례가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문화영역 세계화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의제들은 ‘국민국가의 정체성이 세계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재구성되는가’라는 문제와 세계화가 진행되

면서 그에 대한 대응이 국민국가 층위를 넘어서는 단위에서 모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설명할 새로운 개념적 틀이 필요하다는 문제이다. 즉 세계화의 귀결인 시공간의 압축으로 인해, 개별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지역의 활발한 연대 움직임은 사실상 세계화 시대의 매우 중요한 문화 현상으로, 세계화와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화 움직임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다. 세계화를 미국화와 균일화라는 한 방향으로만 이해하거나, 중심과 주변이라는 이분법적인 문화제국주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문제를 단순화하는 것으로 현실이 보여주는 복합적 현상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화 영역에서도 힘의 불균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문화 세계화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다수의 중심들이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다극화의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국가의 경계를 뛰어 넘어 일정하게 지역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사례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식민경험을 통해 언어, 역사, 종교, 문화 등 다양한 층위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 라틴아메리카 대륙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시공간의 압축이라는 국면을 '우리 아메리카'를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국민국가의 정체성 형성이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었고, 근대를 '차별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세계화에 대한 또 다른 접근 방식과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라틴아메리카의 경험을 가르시아 칸클리니의 혼종문화라는 관점을 통해 이해해 보고자 한다.

II. 문화에 대한 가르시아 칸클리니의 입장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론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르시아 칸클리니의 혼종성과 혼종문화 개념을 살펴보는 것은 세계화와 관련하여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다. 더 나아가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를 둘러싼 다양한 관점들을 일견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가르시아 칸클리니의 문화관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존 베벌리(John Beverley) 역시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에서 가르시아 칸클리니가 갖는 중요성을 인정한다. 그가 베아트리스 사를로(Beatriz Sarlo)와의 비교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듯이, 가르시아 칸클리니가 보여주고 있는 문화, 특히 대중문화에 대한 입장은 대중문화를 바라보던 전통적인 입장과는 차별된다. 즉 베아트리스 사를로가 주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대중문화관을 가지고 대중문화를 바라보고 있는 데 반해, 가르시아 칸클리니는 대중문화를 단순히 문화산업이나 지배 문화에 의해 ‘조작’되거나 하위범주화하는 문화가 아니라,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창조성의 공간으로 간주한다(Beverley, 1996: 465).¹⁾ 대중문화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 변화는 그의 이론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즉 초기에 보여주었던 마르크스적인 경향에서 탈피하여 시장과 소비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로 이어지는 그의 사유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로 이어진다.

가르시아 칸클리니의 『혼종문화: 근대성 넘나들기 Culturas híbridas: Estrategias para entrar y salir de la modernidad』는 그의 지적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세계화시대 정체성과 문화의 변화를 다루기 위한 그의 이론적 방법론이 바로 “혼종화(hibridación)”인데, 이는 기존의 계급적이고 갈등적인 관점에서 문화를 이해했던 것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에밀리아 베르무데스(Emilia Bermúdez)는 정체성과 관련한 논의에서 가르시아 칸클리니의 혼종성 개념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변화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2002: 80). 하나는,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예술과 권력의 상징적인 관계에 주목하던 시기이다. 이 시기의 혼종성은 주로 사회계층의 통합을 주장하고 사회계층간의 갈등을 은폐하는 국가주의적인 부르조아 계층의 내셔널리즘에 대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시기 예술과 문화에 대한 그의 입장이 마르크스주의의 영향 하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혼종성은 주로 정체성과 문화의 형성의 갈등적이고 역동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혼종문화』가 쓰인 시기로 이분법에 기반한 전통적인 접근방식을 부정하고 있다. 즉 여기에

1) 베아트리스 사를로의 문화연구에 대한 태도와 문화주의적 관점에 대해서는 이성훈, 2002. “중남미 문화연구에 대한 고찰: 문학비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12를 참조.

서 혼종성은 모든 종류의 이분법에 저항하기 위한 방법론적 도구로 기능한다. 혼종적인 것은 “문화적 대상, 상징, 기호, 시간성들의 공존과 겹침으로 인한 근대 사회의 복합성”을 지시한다. 이런 관점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문화는 다양한 문화와 시간들의 공존이자 교차의 결과로 이해된다. 그는 이 과정은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이를 혼종화라고 설명한다(Bermúdez, 2002: 80-81). 그러나 이 시기의 혼종화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문화를 읽어내는 마르크스주의적인 전통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문화에서 헤게모니를 둘러싼 갈등의 문제를 사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 번째 단계는 세계화의 등장과 관련된다. 이 단계에 들어서서 가르시아 칸클리니의 혼종화 논리는 보다 복잡적이고 거시적인 층위에서 진행된다. 즉 이전 단계가 주로 동일한 공간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시간성의 공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주목했다면, 이제 이주, 경계, 시공간 압축 등 세계화에 따른 다양한 문화적 현상을 혼종화 개념을 통해 주로 분석하고 있다. 그는 세계화가 지역적인 것들을 대체하면서 문화를 동질화하고 있다는 비판과 문화를 ‘고유의 것’과 ‘외부적인 것’이라는 대립구도로 이해하는 것에 맞서, 세계화 과정을 통해 정체성과 문화가 가지고 있는 혼종적 성격이 보다 명확해 진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세계화를 “동질화라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차이와 불평등을 억압하지 않고 이것들을 재조직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종성 자체가 아니라, 혼종화 과정이라는 것이다(Bermúdez, 2000: 83).

이러한 혼종화 과정은 정체성과 관련해서 보다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이전 시기에 정체성 구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시공간적인 참조점들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제 국민국가의 완고한 영토성과 통합성에서 벗어나 초국적이고 탈영토화된 공간에서 정체성들이 구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화 과정이 정체성 구성에 있어서 지역적인 과정들을 모두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전히 국가나 종족성들은 존재하지만, 기존처럼 강력한 접합기제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세계화 시대에 고민해야 할 문제는 지역적 정체성들의 상실이 아니라, 문화적 혼종화와 문화의 세계화 과정 속에서 종족적이고 지역적인 정

체성들이 어떻게 재구성되는가이다. 따라서 가르시아 칸클리니는 이러한 혼종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계적/지역적인 대립에서 벗어나, 주체들이 세계화를 상상하는 다양한 방식에 주목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서사하고 재현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Bermúdez, 2002: 83).

이러한 가르시아 칸클리니의 혼종화 개념의 변화는 초기에 보여주었던 문학과 예술을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있다. 따라서 그의 이러한 지적 변화를 두고 세계화 시대 문화 현상에 대응하고자 하는 지적 고민의 결과이자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해하는 입장과, 현실의 구체적인 갈등이 아니라 서구적인 학문들을 가지고 라틴아메리카 현실을 재단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공존한다. 그의 이론은 라틴아메리카의 구체적인 현실에 기대고 있는 ‘자생적’인 이론이 아니라, 미국 내 대학제도에서 연구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문화이론처럼 대도시의 이론적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의 ‘문화적 혼종’과 같은 개념은 라틴아메리카 문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1세계 대학 내의 이론가들에게 소비되는 이론적 패션과 같다는 지적이 존재한다(Kokotovic, 2000: 290). 그의 이론에 대한 비판은 뒤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III. 혼종성 이론의 가능성

앞에서 정리한 것처럼 가르시아 칸클리니의 지적 궤적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그의 주요 텍스트와 관련하여 정리하자면, 1단계는 문화생산, 그리고 지배계층과 하위계층간의 갈등과 불평등에 관심을 주고 있었던 시기로 『자본주의의 대중 문화 Las culturales populares en el capitalismo』(1982)로 대표된다. 이후 마르크스주의적인 그의 관점은 『혼종 문화 Culturas híbridas』(1989)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는 이른바 포스트모던 이론의 영향 속에서 초기의 주된 문제의식이었던 사회적 갈등보다는 문화적 섞임의 문제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이

후 『소비자와 시민 Consumidores y ciudadanos』(1995)에서는 문화생산과 집단적 사회갈등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고, 시민성(ciudadanía)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소비, 그리고 새로운 정치 참여의 장으로 시장을 강조하기 시작한다(Kokotovic, 2000: 291). 물론 이러한 경향은 『혼종문화』의 첫 번째 장이 “유토피아에서 시장”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급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O’connor, 2003: 110). 즉 『혼종문화』에서 보여준 문제의식이 이후에 보다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텍스트에 나타난 그의 문제의식을 검토해 보는 것은 그의 지적 궤적의 지향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는 『혼종문화』에서 라틴아메리카의 근대성이 갖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근대화가 전근대적인 전통을 배제하고 ‘개발과 진보’에 기반한 새로운 가치체계와 삶의 질서를 이식하는 것이라면, 라틴아메리카는 이와는 차별적인 근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도시화, 산업화, 대중매체의 발전 등의 근대화 요소들이 전통적인 문화 형식들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대체하지 못했다.

근대화는 전통적으로 존재하던 고급한 것과 민중적인 것의 역할을 전체 상징시장에서 축소시켰지만, 이것들을 없애지는 못했다. 예술과 민속, 학문적 인식과 산업화된 문화를 상대적으로 유사한 조건하에 재위치 시켰다(18).²⁾

즉 민중적 혹은 고급한 것을 포함해서 전통적인 형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각각 독립적이고 자족적인 질서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라틴아메리카적인 근대화 효과를 가르시아 칸클리니는 “다시간적 이종성(heterogeneidad multitemporal)”⁽¹⁵⁾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서로 다른 시기의 문화적 표현 양식이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논문에서 별 다른 표식없이 쓰인 괄호 안 숫자는 Néstor García Canclini, 1989. *Culturas híbridas: Estrategias para entrar y salir de la modernidad*. México: Grijalbo의 페이지를 표시함. 번역은 역자의 것임.

원주민 전통(특히, 메소아메리카나 안데스 지역에서), 가톨릭 식민주의적 스페인 중심주의, 그리고 근대적인 정치, 교육, 커뮤니케이션 행위들의 침전, 병존, 그리고 교차의 결과이다(71).

이러한 문화적 혼종성에서 가르시아 칸클리니가 주목하고자 한 것은 근대적인 것이 전통적인 것을 대체하지 못했고, 그 결과로 문화적 공존이 나타났다는 사실이 아니다. 수공예품 생산과정과 관련해서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라틴아메리카의 근대화 과정은 전통을 배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하고 재결합하는 경향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 사회, 문화 영역에서 전통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들이 현재에도 여전히 라틴아메리카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그는 혼종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앙헬 라마의 통문화화가 과정 보다는 결과에 주목했다면 가르시아 칸클리니는 혼종화 과정의 구체적인 양상에 주목한다. 이 안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과 힘들이 서로 다른 역사적 시간성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다루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다(Kraniauskas, 2000: 123).

또한 혼종성을 통해 가르시아 칸클리니는 꼬르네호 뿔라르의 이종성(heterogeneidad)과 다른 의미에서,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라는 문화적 위계와 분리가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즉 근대적 문화 형식과 전통적 형식의 공존뿐만 아니라,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라는 이분법적인 구조가 해체되는 과정을 혼종성 개념을 통해 이론화하고 있는 것이다.

근대성의 구성적 과정은 이분법적인 대립의 연쇄로 생각된다:

근대적=고급한 것=헤게모니적인 것

전통적=민중적인 것= 하위주체적

[...] 근대화가 사회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에 특화되는 반면, 전통의 고양은 문화에 한정될 때 전통주의는 오늘날 광범위한 헤게모니 계층에 있어 하나의 경향이고, 거의 아무런 갈등 없이 근대적인 것과 결합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제, 어떤 의미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민중영역이 근대성을 지지하고, 근대성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전통과 혼합하는지를 물어야 한다(191-192).

이렇듯 근대성을 구성하고 있는 이분법적인 대립을 해체하면서, 라틴아메리카의 혼종 문화는 새롭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근대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 지역적인 것, 국가적인 것, 초국적인 것, 고급한 것, 민중적인 것, 대중적인 것 등을 결합시키고 있다는 것이다(Kokotovic, 2000: 292). 이 과정은 바로 서구적인 근대성의 이식이나 맹목적인 추수가 아니라, 라틴아메리카가 근대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확장된다. 그가 부제로 사용하는 있는 “근대를 넘나드는” 것의 의미는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에 대한 주목”을 통해서 나온다는 그의 표현처럼, 근대를 탈영토화하고 또 재영토화하는 과정을 혼종화가 하고 있다는 것이다(288).

『혼종문화』에 나타난 혼종성은 이후 세계화 담론, 정체성 갈등, 문화적 충돌에 대한 분석틀로 확대되어 간다. 특히 그가 보여주고 있는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혼종화를 통해 세계화에 저항하거나, 혹은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그의 이론적 확신에서 기인한다(García Canclini, 2000: 11) 세계화 과정 속에서 제국주의적 국가들의 문화에 의해 개별 국민국가 문화가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복합적인 상호교환, 그리고 불균등하고 비대칭적인 혼종화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문명 간 전쟁과 혼종화” 사이의 선택이라는 표현은 혼종화만이 차이들의 민주적인 공존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그의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헌팅턴이 말한 문명 간 갈등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혼종화를 선택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간다(García Canclini, 2000: 7).³⁾

혼종화를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실천을 형성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과정’으로 이해했을 때, 혼종화는 분리되어 있던 개별적인 구조 혹은 실천을 어떻게 결합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가르시아 칸클리니의 답은 다음과 같다. “때로는 예측하지 않은 방식으로 혹은 이주, 관광, 경제 혹은 커뮤니케이션 교환의 예측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혼종화는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창조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García Canclini, 2000: 4). 가르시아 칸클리니가 예를 들고 있듯이, 수공업자들이 전통 수공업품을

3) 가르시아 칸클리니는 혼종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나는 서로 분리된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던 개별적인 구조와 실천들이 새로운 구조와, 대상, 실천들을 형성하기 위해 결합되는 사회문화적 과정을 혼종화로 이해한다.” *ibid.*, 2.

새로운 시장과 생산조건에 맞추기 위해 디자인을 비롯하여 변화를 주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근대적 시장에서 전통 수공업품이 상품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전통 수공업자들이 취하는 전략을 그는 혼종화의 예를 보고 있다. 따라서 “전환(reconversión)”이라는 전략적 선택과 결부된 혼성화는 혼성화가 헤게모니 영역의 이익 뿐만 아니라, 근대성의 이익을 전유하고자 하는 민중 영역에 의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혼종성에 기반한 라틴아메리카 근대성은 혹은 라틴아메리카적인 ‘차이’는 라틴아메리카의 탈근대성이나 혹은 라틴아메리카적인 근대성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혼종성은 단일하고 위계적인 근대성 개념에 맞서 그 자체로 하나의 근대성이 되기 위한 방법, 즉, “근대성에 도달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적 전략”(Estrategias para entrar y salir de la modernidad)인 것이다.

IV. 혼종성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혼종화는 차이들을 무화하고 동질화하는 것이 아니라 혼종적 공간을 만들어 내는데, 이 안에서 헤게모니 영역뿐만 아니라 하위주체 영역도 자신들의 목표와 지배적인 실천을 재구조화한다. 즉 혼종성은 초국가적인 경향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차이들의 변화에 의해 만들어진 ‘이종성의 다양한 복합화’로 구성되어 있다. 이 속에서 다양한 전통과 불균등한 근대성들이 절합하고, 다양한 절합의 과정이 공존하는 새로운 문화 생산의 원형질의 공간이다.

따라서 가르시아 칸클리니의 혼종성은 초국가적 시대의 새로운 문화적 자극 아래 진행되는 문화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개념으로 평가된다(Trigo, 2000: 94). 그러나 혼종성을 “초국가적 문화와 지역문화의 충돌에서 느슨해진 이종성의 결과”로 간주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혹은 다른 식으로 말해, 그의 혼종성은 꼬르네호 블라르가 이종성을 통해 주장했던 것과 같은 기존의 이해 방식과 질적으로 차별되는 새로운 인식론적 도구나 아니면 단순한 혼합(mestizo)의 새로운 버전이냐라는 질문인 것이다(Trigo, 2000: 93-94).

이러한 비판은 혼종성이 과연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적 현상을 설명하는 의미있는 도구로 작동할 것인가라는 평가와 관련되어 있다. 혼종성이 세계화된 주변부 모더니티를 설명하는 데 적절한 것이 사실이다. 초국가적인 거대문화의 헤게모니 아래에서 전통과 근대성이 보여주고 있는 복합적인 절합, 문화적 교차들의 강화, 문화적 경계 혹은 범주들의 넘나들, 근대성 패러다임의 와해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주목을 통해 혼종성은 세계화라는 흐름아래에서 진행되는 복합적인 라틴아메리카 문화적 현실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적합한 이론적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혼종성이 혼합이라는 정태적이고 조화로운 문화상을 설정함으로써 인식론적 단절 아니라, 메스티소라는 기존의 메타포에 환원되고 말았다는 비판이 가능한 것이다(Trigo, 2000: 95).

이렇듯 가르시아 칸클리니에 입장에 대한 비판은 몇 개의 지점을 통해서 동시에 진행된다. 하나는 혼종성 이론 자체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이론적 궤적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나타난다.⁴⁾ 꼬르네호 뿔라르는 가르시아 칸클리니의 혼종성 이론이 문화, 사회, 정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가르시아 칸클리니가 제시하는 혼종성의 사례들은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보편적인 예가 아니라 다소 특수한 국면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것을 일반화하면 라틴아메리카 사회에서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간과하게 된다고 지적한다(Kokotovic, 2000: 290). 즉 서로 다른 요소들이 접촉하거나 충돌할 때,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혼종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비록 가르시아 칸클리니가 혼종성 개념이 갖는 갈등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할지라도, 이 혼종성은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의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공존”을 의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꼬르네호 뿔라르가 이종성(heterogeneidad)이라는 개념을 통해 문화현상에 내재한 갈등적인 측면을 부각시켰던 것과는 상반되는 입장이다(Kokotovic, 2000: 290). 더 나아가 이러한 ‘조화로운’ 입장을 통해 문화적 혼종은 권력의 집중과 문화의 집중을 드러내기보다는 오

4) 가르시아 칸클리니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 Alan O'Connor. 2003. "Consumers and Citizens: on Néstor García Canclini." *Pretexts: Literary and Cultural Studies*, 12:1: 103-120.

히려 감추고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문화현상에 대한 ‘조화로운 입장’이 문화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보다는 기술적(descriptivo) 측면의 접근에 그치게 했고, 신자유주의적인 문화 흐름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존 베벌리는 “문화적 혼종성이 갖는 기술적 기능과 대안적 정치 기획의 토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정언적(normative) 개념의 절합”을 구별했다. 베벌리에 따르면 가르시아 칸클리니의 혼종성은 주로 정언적 충위를 결여한 기술적인 기법으로 문화적 혼종화 과정에 대한 주목할 만한 묘사를 보여주지만, 이러한 문화적 과정이 일어나는 사회들의 불평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Kokotovic, 2000: 294-295).

물론 가르시아 칸클리니는 문화적 혼종성은 민주적인 문화와 사회 건설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한다.

아마도 오늘날 문화정책의 중심적 주제는 모든 사람들을 동질하게 하지 않은 채,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된 민주적 기획을 가진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안에서 분리는 다양성으로 고양되고, (계층간, 에스닉간 혹은 그룹간) 불평등은 차이로 축소될 것이다(148).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헤게모니 그룹들이 근대사회, 즉 “불평등과 지배의 체계”에서 보다 더 강력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고 있으며, 이 안에서 하위계층의 실천은 보다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는다(Kokotovic, 2000: 295).

이 점은 존 베벌리가 가르시아 칸클리니의 입장 변화와 관련한 일관된 비판에도 잘 드러나 있다. 하위주체적인 관점에서 혼종성을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베벌리는 『혼종문화』의 이론적 태도는 초기의 비판적인 성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한다. 문화 연구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 즉 지식을 민주화하고, 새로운 형식의 정보 형태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는 일정한 기여를 하지만, “구조적 변화, 혹은 혁명적 변화의 가능성은 사라”진다는 것이다(Beverly, 1996: 473-474).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라는 맥락 속에서 문화가 갖는 의미,

특히 문화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 대신에 혼종화를 통해 문화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그의 혼종성은 새로운 인식지도를 제공한 것이다. 또한 가르시아 칸클리니의 희망은 세계화 및 세계화가 유발한 문화적 변화라는 구체적인 조건 속에서 좌파의 “실제적인 개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르시아 칸클리니의 문화연구는 전통적인 좌파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이해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전통적인 방식의 사회 변혁과는 차별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의 문화연구는 국가 기구들에 개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화, 혹은 포스트 모던의 조건에 좌파의 기획을 일치시키는 하나의 방법적인 것이다. 즉 좌파는 이제 새로운 문화정치를 필요로 하고, 대중문화와 매스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장에 개입하는 것을 요구받는다라는 점에서 가르시아 칸클리니의 시도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르시아 칸클리니가 보여주는 대중문화와 소비자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엄혹하게 실존하는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이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 행위자들의 실천에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라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 물론 그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좌파의 “구텐베르그적 개념”이라고 비판하지만, 그의 입장 역시 시장에 투항한, 전향한 좌파의 모습이라는 비판에서 그리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Beverly, 1999: 123).

V. 혼종문화: 티후아나(Tijuana)의 사례

혼종화라는 개념은 그의 텍스트 안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대상을 지칭하고 있다. 하나는 지금까지 주로 살펴본 것처럼, 문화영역을 나누는 전통적인 분류 방식의 해체를 의미한다. 즉 엘리트 문화, 대중문화, 상업문화, 고급문화 등이 서로 뒤섞이고 새롭게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전통/근대, 교양/대중/민중 등의 전통적인 이분법을 해체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다른 하나는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의 티후아나 지역과 같은 경계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탈영토화’ 과정과 관

련되어 있다. 이곳은 역사적 조건을 달리하는 서로 다른 사회의 문화적 구성물들이 뒤섞이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혼종화를 통해 이곳에서 더 이상 국가나 ‘국가적 거대서사’는 문화적 통합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제3의 국가’ 혹은 경계문화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가르시아 칸클리니는 로저 루세(Roger Rouse)가 진행한 멕시코의 남쪽 농촌인 아길리야(Aguililla) 마을 연구를 인용하면서, 전통적인 농경생활을 운위하던 이 마을 구성원들 사이의 정체성이 이주와 ‘탈영토화된’ 개념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가르시아 칸클리니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유추해 낸다.

사회이론에 있어 관습적인 두 개의 개념이 이러한 “교차의 경제들, 상호 교차하는 의미들의 체계, 파편화한 개인들” 앞에서 무너진다. 하나는 고립된 농촌 거주자들 뿐 아니라, 국민국가의 추상적 일치를 표현하기 위해 채용되는 “공동체” 개념이다, 이 두 경우 모두 특정한 영토와의 관련성을 통해 정의될 수 있었다. [...] 두 번째 이미지는 중심과 주변부의 대립, 즉 “이상화된 제국주의적 체제의 추상적 표현”이다. 이 안에서 권력과 부의 배열은 동심원적으로 배치된다. [...] 세상은 점점 더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루세(Rouse)는 말한다. 이제 “회로”와 “경제”의 개념에 더 많이 기초한 “사회 공간의 대안적 지도제작법”을 필요로 한다(292).

이제 이러한 대안적 지도 제작법을 찾기 위해 가르시아 칸클리니는 미국과의 국경에 위치한 국경도시인 티후아나의 문화 현상에 주목한다. 그는 티후아나가 가지고 있는 ‘경계적’ 상황에서 탈영토화와 세계화의 효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심을 보인다. 그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듯이 이러한 경계 지대에서 문화적 혼종의 사례가 언어, 음악, 광고 등을 통해 잘 드러나고, 이 안에서 개인들은 정체성의 혼종을 경험하게 된다(298-299).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중 언어 잡지인 *La línea quebrada / The Broken Line*의 편집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탈멕시코인(Posmexica), 전치카노(prechicano), 범라티노, 이주자, arteamericano(sic)···요일에 따라, 혹은 다루고 있는 주제에 따라 달라요”라고 말한다(302). 이

제 영토성에 기반 한 완고한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터뷰이다.

티후아나 도시의 혼종화와 관련해서 가르시아 칸클리니가 주목한 것은 얼룩말 무늬가 그려진 당나귀들과 관련된 일화이다. 즉 티후아나에는 존재하지 않은 얼룩말을 ‘만들어내기’ 위해 당나귀에 페인트를 줄무늬를 그린 것이다.

레볼루시온 거리의 많은 모서리에는 얼룩말들이 있다. 실제로는 페인트로 무늬가 그려진 당나귀들이다. 미국 관광객들은 멕시코의 다양한 지역의 이미지들이 섞여 있는 그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다. 화산, 아스텍 문양들, 선인장, 뱀을 문 독수리. “남쪽지역의 피라미드처럼, 무엇인가 색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미국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해요”라고 한 곳에서 그들이 말했다. 다른 곳에서 “또한 과거로, 야생으로, 그리고 말을 탈수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국경을 넘는다는 미국인들의 환상과 관련이 있어요”라고 말했다 (300).

이 얼룩말과 다양한 실재의 이미지를 섞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이 과정 속에서 티후아나의 문화는 일종의 시뮬라크르가 되는 것이다. 문화의 진정성이 아니라, 얼룩말처럼 “명백하고 가식적인 환상”이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티후아나의 문화는 멕시코적인 것과 미국적인 것이 공존할 뿐만 아니라, 혹은 미국적인 욕구와 멕시코적인 선망이 섞여 만들어진 ‘놀랄만한’ 창조의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이제 이 문화를 멕시코적인가, 아니면 미국적인가, 즉 진정성을 묻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국경이 움직이는, 즉 완고하게 서 있을 수도 혹은 허물어질 수 있는 곳에서, 건물들이 그들이 재현하는 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환기되는 곳에서, 매일 도시 자체의 놀랄만한 창조는 새로워지고 확장된다. 시뮬라크르가 문화의 중심적인 범주가 된다. “진정성”은 상대화된다. 또 한 모든 사람들이 허구라고 아는 얼룩말처럼, 혹은 미국경찰에 의해 “목인되는” 불법이주자들의 숨바꼭질 게임처럼, 명백하고 가식적인 환

상이 정체성을 정의하고 타자와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301).

그러나 가르시아 칸클리니에 의해 묘사된 혼종화는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1세계 중심적이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빠블로 빌라(Pablo Vila)가 국경지대의 정체성과 관련된 글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경계지대를 바라보는 입장은 1세계 입장과 멕시코적인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다. 글로리아 안살두아(Gloria Anzaldúa)의 예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경계지대를 새로운 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모체, 혹은 제3의 지대로 간주하는 것은 경계지대의 구체적인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빈곤과 억압을 간과한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인 태도라는 것이다(Vila, 2003: 608-609). 이러한 관점은 가르시아 칸클리니의 예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가 혼종화 과정에 드러나는 불평등과 갈등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혼종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가능하게 한다.⁵⁾

티후아나의 경우에서 보이는 것처럼 혼종화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건이다. 이 혼종화가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초국가적 상황에서 진행되는 문화 간 접촉을 설명하고 새로운 문화의 조형을 추동해 낼 수 있는 이론적 틀임은 분명하다. 이 혼종화가 1세계 지식인들의 이상적이고 제국주의적인 태도로 귀결되지 않기 위해서는, 혼종화를 전략적으로 차용하고자 하는 지역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티후아나 문화를 세계화 시대 혼종화 패러다임이 작동하고 있는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가능성을 잡아내고 있는 가르시아 칸클리니의 시도는 의미를 갖는다. 그는 『혼종문화』에 나타난 “혼종화는 우리를 오늘날 모든 문화는 경계문화라는 결론으로 이끈다”라고 말한다(325). 즉 티후아나 같은 경계지역은 혼종적인 “제3의 공간”, 문화적 형성 과정에 있는 텍스트와 시간을 읽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인식론적 위치라는 것이다.

5) “전통적인 상징체계와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 망, 문화산업, 그리고 이주와의 상호작용에서, 정체성과 국가적인 것, 주권의 옹호, 삶과 예술에 대한 불평등한 전유에 대한 질문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신보수주의적인 포스트모더니즘이 바라는 것과 달리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다”(304).

VI. 나가면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가르시아 칸클리니는 라틴아메리카 근대성의 특징을 ‘다시간적 이중성’으로 파악하고 그 구체적 양상을 혼종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분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이분법에 기대고 있는 근대성 개념과의 인식론적 단절을 피하고, 근대성을 넘나들면서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혼종성을 전략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혼종성 이론이 근대성을 넘나들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었지만, 근대성을 전복했기보다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근대성과 전통의 직선적 시간관을 인정하고 있다는 비판 역시 가능하다. 즉 전통은 과거이고, 근대성은 현재 혹은 미래의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되는 근대적 시간관을 고착시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공예품을 비롯하여 전통문화 양식이 근대적인 자질을 통해 ‘전환’에 성공하면 시장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근대화되지 못한 수공업자는 도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의 혼종성은 또 다른 의미에서 근대성을 인정하고, 그것의 배제적인 속성을 받아들이는 효과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의 혼종성은 라틴아메리카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에 부합하는 이론적 접근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 혼종적 관점이야말로, 라틴아메리카의 근대화에 대해 사유하는 대안적 형식이라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 가치의 대체 속에서 작동하는 외래적인 것이 아니다. 라틴아메리카 근대성의 독특한 성격과 이것과 전통과의 관계, 다시 말해 다양한 사회영역이 다시간적 이중성에서 어떠한 기획을 통해 근대성을 넘나들 것인지에 대한 프로젝트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화적 혼종성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사회, 문화에 개입해 있는 다양한 억압적인 권력을 드러낼 수 있고 또 전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티후아나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계화 시대의 문화 현상을 드러내는 방법론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그의 혼종화를 통한 경계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 다양한 비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

정하게 폐쇄적인 지역문화 혹은 국민국가 문화와 시장에 기반한 세계화가 강제하는 동질화 과정이 서로 접촉하고 충돌하면서 ‘혼종적 과정’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판단된다. 특히, 세계화 시대의 대안 논리로 대항적 민족주의 혹은 세계시민주의가 갖는 한계를 인식할 때 더욱 그러하다. 지역연대가 세계화의 획일적 패권주의에 맞서는 유력한 현실적 대안임과 동시에 고착화된 국가 정체성에 기반한 폐쇄적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긍정적인 탈식민의 문화 조류라고 할 때, 이러한 지역연대의 선결과제인 혼종화에 대한 진지하고 비판적인 성찰이야말로 세계화에 대한 의미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 Aboul-Ela, Hosam. 2004. "Comparative Hybridities: Latin American Intellectuals and Postcolonialists." *Rethinking Marxism*, 16(3): 261-279.
- Bermúdez, Emilia. 2002. "Procesos de globalización e identidades. Entre espantos, demonios y espejismos: Rupturas y conjuros para lo "propio" y lo "ajeno"." in Daniel Mato(ed.). *Estudios y Otras Prácticas Intelectuales Latinoamericanas en Cultura y Poder*. Caracas: Consejo Latinoamericano de Ciencia Sociales. 79-88.
- Beveley, John. 1996. "Sobre la situación actual de los estudios culturales." en J.A.Mazzotti y Juan Cevallos(eds.). *Asedios a la Heterogeneidad Cultural: Homenaje a Antonio Cornejo Polar*. Pittsburg: Asociación Internacional de Peruanistas. 455-474.
- _____. 1999. *Subalternity and Representation: Arguments in Cultural Theory*. Durham / London: Duke Univ. Press.
- de la Haba, Juan y Enrique Santamaría. 2001. "Dilemas de la globalización: Hibridación cultural, comunicación y política." *Voces y culturas. Revistas de Comunicación*, 17: 143-165.
- de Mojica, Sarah(ed.). 2000. *Culturas híbridas- No simultaneidad- Modernidad periférica: Mapas culturales para la América Latina*. Berlin: Wissenschaftlicher Verlag Berlin.
- de Toro, Alfonso, Cornelia Sieber, Claudia Gronemann, René Ceballos(eds.). 2007. *Estrategias de la hibridez en América Latina: Descubrimiento al siglo xxi*. Frankfurt: Peter Lang.
- García Canclini, Néstor. "La globación: ¿productora de culturas híbridas?" 2008년 9월 8일 검색. <http://www.hist.puc.cl/historia/iaspmla.html>.
- _____. 1989. *Culturas híbridas: Estrategias para entrar y salir de la modernidad*. México: Grijalbo.
- _____. 2000. "Noticias recientes sobre la Hibridación." Texto presentado en la II Reunión del Grupo de Trabajo "Cultura y Transformaciones Sociales en Tiempos de Globalización" de Consejo Latinoamericano de Ciencias Sociales.
- Kokotovic, Misha. 2000. "Hibridez y desigualdad: García Canclini ante el neoliberalismo." *Revista de Crítica Literaria Latinoamericana*, 52(2): 289-300.
- Kraniauskas, John. 2000. "Hybridity in a Transnational Frame: Latin-Americanist

- and Postcolonial Perspectives on Cultural Studies.” *Nepantla: Views from South*, 1(1): 111-137.
- Moreiras, Alberto. 1999. “Hybridity and Double Consciousness.” *Cultural Studies*, 13(3): 373-407.
- O’connor, Alan. 2003. “Consumers and Citizens: on Néstor García Canclini.” *Pretexts: Literary and Cultural Studies*, 12(1): 103-120.
- Sobrevilla, David. 2001. “Transculturación y Heterogeneidad: Avatares de dos categorías literarias en América Latina.” *Revista de Crítica Literaria Latinoamericana*, 54(2): 21-33.
- Trigo, Abril. 2000. “Shifting Paradigms: From Transculturation to Hybridity: A Theoretical Critique.” in Rita de Grandis and Zilá Bernd(eds.). *Unforeseeable Americas: Questioning Cultural Hybridity in the Americas*. Amsterdam: Rodopi. 85-111.
- Vila, Pablo. 2003. “Process of identification on the U.S.-Mexico border.” *The Social Science Journal*, 40: 607-625.

성명: 이성훈

주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교수아파트 122A-404

E-mail: anselmus@snu.ac.kr

성명: 김창민

주소: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어서문학과

E-mail: chang107@snu.ac.kr

논문접수일: 2008년 09월 24일

심사완료일: 2008년 10월 10일

게재확정일: 2008년 10월 17일